



경제와 삶을 바꾸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한다.

정부 3.0

정부 3.0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견인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 목성호 서기관 정진욱	042-481-5062
영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공유·소통·협력]	2015년 11월 20일(금)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1월 19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행복 실현한다’ - 영상구술심리부터 맞춤형 IP-R&D 지원까지 국민중심 서비스 제공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20일(금) 15시 특허심판원(대전 서구 둔산동)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 가정동)에서 「제4차 정부3.0 현장포럼」을 개최한다.

정부3.0 현장포럼은 특허청과 행자부 등 중앙부처, 공공기관, 정책수혜자 등이 모여 정부3.0 성과가 좋은 현장을 방문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현장포럼에서는 특허청 정부3.0의 성과로 원격지 특허심판 당사자를 위한 ‘영상구술심리’와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맞춤형 ‘IP-R&D(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 정부3.0 :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고, 정부 내부적으로 민간과 개방·공유·소통·협력하며,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개혁

영상구술심리는 원격지에 거주하는 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구술심리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제도이다. 종전에는 구술심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당사자가 대전으로 와야 했으나,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의 개통으로 이러한 불편은 사라졌다.

실제 시스템을 이용해본 심판당사자들은 이동시간과 이동비용이 줄어 편리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14년 심판당사자와 대리인 거주지 분포 : 서울(87.4%), 경기(2.3%), 인천(0.8%) 등

** '14년 영상구술심리 만족도 : 이용자의 91% 만족, 96.4%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음

IP-R&D 전략 지원사업은 지식재산권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주는 사업이다. IP-R&D 전략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성과사례로 (주)벤틱스를 들 수 있다.

(주)벤틱스(대표 고경찬)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을 흡수·증폭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소재(솔라볼) 등을 개발하였으며, 2014년 글로벌 기업인 컬럼비아와의 특허소송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쿨링기능을 강화한 소재)을 바탕으로 나이키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에는 400만달러, 내년에는 1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현장포럼에서는 정부3.0의 효율적 홍보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특허청 정부3.0 서포터즈 : 국민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로 개편을 위해 특허청 정책추진에 민간 서포터즈가 참여하여 정책디자인, 홍보 등을 수행

특허청 김태만 기획조정관은 “정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책 수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맞춤형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정부3.0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의 우수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고객지향의 원격 영상구술심리제도, 맞춤형 R&D 지원 사례

□ 추진배경

-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개최건수가 증가하여, 수도권 거주 심판당사자 등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 구술심리 개최건수 : ('09) 165 → ('10) 647 → ('11) 757 → ('12) 963 → ('13) 879 → ('14) 633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전·서울 심판정간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권 거주 심판당사자, 대리인 등의 불편 해소 필요
 - * 당사자, 대리인 거주지 분포('14년 참석자 기준, 총 1,156명) : 수도권 90.5% [서울(87.4%), 경기(2.3%), 인천(0.8%)], 대전(5.0%), 부산(1.5%), 대구(0.7%), 경남(0.7%), 광주(0.3%) 등

□ 주요내용

- 심판당사자 및 대리인이 집중된 서울(특허청 서울사무소 심판정)과 대전 특허심판원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구축
-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영상구술심리시스템 기능 개선
 - 대면 구술심리와 차이 없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성능 및 환경 개선
 - * 각 심판정에서 상대 심판정에 있는 증거물품 등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실물 화상기 설치 등

□ 성과

- 구술심리를 위한 대전·서울 간 이동을 줄여 시간 및 비용 절감
 - 심판당사자 관련 연간 4,000시간 절약, 3억원의 비용 절감
 - * 당사자 : 4,000시간 = 4시간×2명×500회(1년 구술심리 목표횟수),
3억원 = 여비(5만원×4명×500회=1억) + 시간당 비용(5만원×4시간×2명×500회=2억)
 - 대리인 관련 4,000시간 절약, 12억원의 기회비용 감소
 - * 대리인 : 4,000시간 = 4시간×2명×500회, 12억원 = 30만원(변리사 시간당 수익)×4시간×2명×500회
- 지속적인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영상구술심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진행 만족도는 95%가 만족(매우만족), 향후 영상구술심리 재이용 의사는 97.6%
 - * 조사기간 : '14.6.26~10.31, 대상 : 당사자 및 대리인 등 41명(청구인 20, 피청구인 20, 기타)

□ 추진 배경

-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이 강한 지식재산권(IP)으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권 전략에 기초한 맞춤형 연구개발(IP-R&D) 지원

* '08년~'14년까지 7년간 812개 민간 R&D 과제에 대한 IP-R&D 전략지원 사업 지원

- 중소기업인 벤틱스社의 경우도 특허청 맞춤형 IP-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쟁사 핵심특허 대응 및 R&D 방향 제시

□ 벤틱스社 관련 주요 지원 내용

- (경쟁사 핵심특허 대응) 벤틱스社는 자사 '체열반사소재*'의 사업화에 최대 걸림돌인 경쟁사(美 컬럼비아社) 특허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 경쟁사(美 컬럼비아社) 보유 핵심특허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멸 특허 등을 활용한 경쟁사 특허 대응 및 회피 전략 수립 지원

* 땀을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보온성이 유지되는 첨단 섬유 소재

- (R&D 방향 제시) 광발열 기능 충전제 '솔라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원사물질** 선정 및 섬유 균일도*** 확보에 애로

⇒ 특허분석에 기반한 발명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최적의 원사물질 제안 및 섬유 균일도 확보에 적합한 제품 설계안 제시

* 태양광을 흡수·증폭하여 열을 발생하는 아웃도어 내피용 첨단 소재

** 직물의 원료가 되는 실, *** 섬유 속의 성질이 고르고 굵기나 길이가 균일한 정도

□ 지원 성과

- IP-R&D 지원을 통해 벤틱스社는 글로벌 경쟁사와 특허소송에서 승리하고 우수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수출 계약 성사

지원 내용	지원 성과
소멸특허를 활용한 핵심특허 대응전략	'14. 美 컬럼비아社와의 특허소송 승소
제품 성능을 좌우하는 최적의 원사물질 제안 및 제품 설계안 제시	'14. 나이키社, 아디다스社와 전략적 파트너 제휴 '15. 인비스타社 러닝로열티(8%) 계약 체결